

# 2022년 3분기 사역 보고

— 베트남, 박닌성 안용백/안숙희 선생 -

After COVID-19의 사역이 시작되는 하반기는 설렘과 흥분이 계속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역 전략과 방향의 전환이 필요했고, 또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동안 준비한 일들이 결과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구체적인 사건과 진행상황을 보고 합니다.

## 1. 박닌 한국 도서관 개관

박닌성에 “작은 꿈” - 지난 3년간 모아 온 한국 책을 통해서 명실공히 한국 도서관을 공공에 오픈하게 되었다. 다니엘 센터에서 유치원과 한글반 수업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여 운영했던 도서실을 확장하여, 5000여권의 장서를 가진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의 특별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공간을 10년간 무료로 임대해준 박닌 ‘피닉스 리조트 그룹’의 흥 (Hung)회장의 만남과 4개월간 지속된 생각 치 못했던 선물은 에프터 코로나의 첫번째 격려였습니다. 작년 다니엘 센터 문을 닫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건물 렌트비였기 때문에 이 선물은 더욱 감격이었습니다.



둘째, 하노이 도서관(한인회 운영)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2년간 남는 책을 기증받으면서, 하노이에서 박닌까지 책 박스를 운송하여, 책장에 책이 채워지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하노이 도서관(한인회)와 박닌 도서관(박닌 교육문화원) 협약식도 체결하고 공식화 하였습니다.



세째, 한베 가정의 자녀한글 교육으로 알게 된 주영이 엄마(프영)의 적극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세종 유학원과 어학원을 통해서 함께 지역 사회를 섬기게 된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시간을 쪼개는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과 동역함이 은혜입니다. 한.베 가정의 어머니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베트남의 마음이었습니다.

네째는 하노이 한인회장(장은숙)과 업무협약과 축하화환이 격려가 되고, 옛 직장 동료였던 백제 갈비를 운영하는 이석덕 사장의 화분과 식사후원 그리고 아내의 친구부부(침구회사, 에브론)의 책장 과 현판 기증, 한국 대사관의 격려와 협력으로 개관식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박닌 한국 도서관 이사는 힘들었지만 ~요 ! 그러나- 결과는 기쁨 !  
도서관 내부 화보 -



## 2. JFC 햇불교회 런팅 프로젝트 - 태권도장 교회

하반기 사역의 가장 큰 변화는 <처치 플랜팅 > 사역의 전환. 태권도 동역자 최선생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팀(TIM) 전도사가 담임이 되어서 2년 전부터 기도와 전도로 모인 12명 정도의 작은 그룹이다. 팀전도사는 하노이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회사에 스카웃 되어서 일본에서 1년간 직장 생활 하다가 돌아온 설계(CAD)전문가이다. 대학을 다닐때 전공이 회의가 들었으나, 대학 2학년때 폴(Trang짱,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며 체류중)목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후에 목회를 할 비전을 받고, 직장생활을 일본에서 하던중에 베트남에 입국해서 폴목사와 1년간 동역하며 훈련을 하였다.이후 2년전에 카페교회를 만들려고 시도하였는데, 코로나로 카페도 문닫고 전전공공하던 중에 태

권도장에서 무료 태권도교실을 하며 배우던 청년을 통해서 승리태권도와 연결



되었다.

2개월 간의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역자임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설교에 초청되어서 교재가 진행되었다.

8월 27일에는 베트남 작은 청년 교회 14개정도가 연합해서 리더들이 모이는 **헌신집회**가 있었고, 대표 기도로 초청되어 참석하는 기회를 갖었는데,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였다. 이 집회를 주도하는 팀 전도사의 열정과 의지에 감동되었다. 준비 기간 중에 함께 기도모임을 하면서 그 응답으로 200여명이 참석한 모임의 전체 비용 중 50%를 우리 팀 사역에서 헌금 하기도 결정 하였고, 연합 사역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JFC(햇불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연합과 협력의 철학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였고, 팀 리더가 있었다. 몇 주전에는 - 그레이스 교회(지엠 담임목사)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고, 성령이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이었다. 지엠 목사는 필리핀에서 유학후 2년전에 베트남에 귀국했다. 2년 전에 다니엘 센터에서 동역을 의논한 적이 있는 젊은 목회자였다. 이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만날 수 없었던 사역자들을, 너무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만났으니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젊은 청년 사역자들의 연합과 동역에 큰 기쁨을 누리며, 이들과 처치 플랜팅을 해나가는 비전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제 처치 프랜팅은 이렇게 열정이 있고, 연합과 동역의 기쁨의 철학을 공유하는 젊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미션의 방향임을 정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동역할 팀을 결정하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HSM(가칭 : 하노이를 사랑하는 미션)**이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정선생 과 박 에스더선생과 이.김 선생 가정이 이렇게 4유닛이 한 팀을 이뤄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지역 한인 교회중에서 한국에서 파송된 젊은 담임목사와 이미 베트남 교회를 시작한 선생 그리고 30년 전부터 하노이에서 사역한 선생이 함께 사역을 준비하며,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것이 2022년 마지막 미션이라고 정리하며 이 일에 에너지는 모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2개의 교회를 런칭 할 자매후원 교회가 연결되도록 (월 \$350, 3년간) - 한 교회를 세우는데 전임 사역자에게 매월 800만동 (\$350, 한화 40만원)을 정기 후원하는 재정 후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선 50%를 팀 전도사에게 후원을 시작하고, 협력과 훈련을 병행 하면서 목표액을 후

원하여 교회 등록 때 까지 함께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3.한국어 반과 태권도반의 위력은 전도와 훈련의 텃밭

사역의 주요한 전략이 비즈니스와 한국어 교육였던 베트남에서의 선교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청년 사역으로 타켓을 전환 했고, **한국어 교실과 태권도 교실**은 제자를 키우는 매우 중요하고 유효한 사역 도구이다. 최 선생의 토요일 무료 태권도반은 30여명이 된다. 이들 중 5명은 무료 한국어 반에 중복 훈련을 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한국어 반은 JFC 예배당인 태권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21명이 등록해서 첫 3개월 코스를 진행하는데, 이 반을 통해서 벌써 3명이 교회 예배까지 참석하는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태권도 반과 한국어 반 사역의 공통점은 사역자체가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시작된 대학생.청년들과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교회 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속되는 전도훈련을 통해서 이들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팀 전도사와 사역팀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교회 멤버가 되게 되면, 한국어 반과 태권도반은 베트남 교회를 세워가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 낼것을 확신한다.

직접 대학교에 나가서 전도하는 방법 대신, 스스로 우리의 공간으로 오게하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과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



#### 4.그림 일대일 전도 훈련 시작



교회 멤버를 인도하는 것은 4 units 이 기도하며 함께 에너지를 모으며 이뤄지고 있다. 다른 중요한 전략은 리더인 팀 전도사와 교회 멤버를 훈련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팀 전도사와 지금 진행하는 <그림 일대일 전도>프로그램은 1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했다. 장소 문제로 고민하다가, 태권도 클래스가 끝나는 토요일 오후 3:30에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전략적으로 4명이 진행하는데, 한국어 통역으로 완 (WAN)자매가 섬기고 있는데, 모두가 동역자이다. 최 선생의 베트남어 실력은 하노이 100여명의 한

인 선생중에 1-2위를 다룬다고 할 정도이지만, 완벽한 베트남어 설교나 통.번역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 5급자격을 가진 완 자매가 통역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최 선생이 검증하면서 긴장관계 속에서 한국어 교재와 영어 교재를 함께 펴고, 베트남어로 통역하며, 팀 전도사를 훈련하고 있다.

열정과 집중력이 강한 팀 전도사는 벌써 나가서 청년 대학생에게 전도를 그림 일대일 교재를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자매에게 2과까지 진행했다. 완 자매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쁘지만, 다음 과의 연습(성경구절을 베트남어 버전으로 다 기록) 해와서 진행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은 힘들지만, 함께 참여하며 베트남의 번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단어와 내용을 함께 검증하며,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사역자 1명을 훈련하는 첫 번째 코스에 이렇게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시간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서, 참으로 큰 은혜다. 기쁨이며 감사다.



## 5. HSM 하노이를 사랑하는 미션, 팀의 구성(4유닛의 연합)

교회 프랜칭 사역을 2022년 비전으로 정하고 나갈 때에 동역팀이 구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각자에게 감사이고, 감동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하노이에 도착한 이현창 목사 가정(김미경,희원,예준)이 7월 하반기에 입국했다. 미드웨스턴 신대원에서 함께 수학한 동문으로, 세종시에서 직장과 목회를 겸 했던 열정 덩어리다. 작년 말 부터 베트남 입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랜 기다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야 입국했다. 베트남은 쉬운 나라가 아님을 알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두 아이들(중학생)은 콩고디아 국제학교에 입학해서 적응을 잘 하고 있고, 부부는 베트남어 학원에서 열심히 언어과정과 정착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사역팀에서 함께 하는 멋쟁이 가정이다.

이미 세팅 되었던 최현성.정선미 선생과 박에스더 선생과의 팀웍은 지난 3년의 경험이 있었지만 코로나 공백으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자가 소생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사역의 여정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설렘이 크다. 그 은혜를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운 2022년의 여정가운데 재 출발의 팀웍으로 팀 전도사와 하고 있다.



기도제목 : 네 유닛이 연합과 일치의 선한 목표와 방법으로 서로가 아름다운 팀웍을 만들어내도록



이현창목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념 사진.